아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1-14)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면 현장은 반드시 정복됩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결정해야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응답 받고, 전환점을 맞이하며, 역전하고,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이 치유가 됩니다.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뱀 머리가 깨집니다.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방법이 말씀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도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예배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듣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메시지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전도를 위해서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과 가족을 살릴 때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 아들을 통하여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했지만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2절에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창조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분도 아들이라는 것, 유지도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심이니', 5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셨으며'라고 하셨습니다. 삼하 7:14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에게는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6절은 시 97:7, 7절은 시 104:4를, 8절은 시 45:6을,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02:25(주님이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은 시편 110:1을 인용하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며,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말씀과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말씀'입니다.

2. 말씀

2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고 4 복음서에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필요 없고,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외는 절대 없었고,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알맹이(말씀)가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 말씀의 예시입니다. 그중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모든 기록은 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13장에는 롯과 헤어질 때 하는 중요한 결단을 기록했습니다. 단을 쌓아서 전에 행하시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근본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살리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창 15장에는 아들이 없어 고민 중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 16장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니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준 약속에 대하여 네가 완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24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 22장에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5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을 상징하는 수양 이

야기를 보이시고 아브라함의 기록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수양, 그 수양을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닌 모든 성경 인물에게 공통된 원리입니다. 딤후 4:1-2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야 사람이 살고, 전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인생이 정복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도 예외도 없이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인데, 내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멈춰서 개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내게는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본 딛1:3 말씀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것도 생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기를 전달하는 말씀을 따라 생기를 전하는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건 영적인 안건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려면, 첫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맞다는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하며,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로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마음 담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눅 1:2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떻게 쓰게 된 건지 서론처럼 하는 말입니다. 역사를 보고 기록을 한 자가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 헌신 등에 대한 개념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누가의 예민한 포인트를 느끼게 됐습니다. 일꾼 된 사람은 말씀에 일꾼이 돼야 정상적인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다 했는데 말씀이 빠지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다른 건 둔하고, 잘 안 하지만 말씀에 생명 걸고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그릇이 되고, 언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말씀 하나를 찾아서 내 삶에 현장에 적용해도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답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옵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말씀은 부딪힙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걸을 때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면 인생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현장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바탕에 깔고 기도할 때 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과 사람과 마음과 생각을 성경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때는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예비 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만남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인생 역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의 근본 또한 이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잘 살아도 전도가 허락된 삶만큼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2절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없이 고백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봤으니 이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안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응답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의 답이 되길 기도합니다.